

GRACE 선교소식

2026년 5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GMI 은혜교회 주일예배를 마치고, 곤지암에 위치한 수양관에서 GMI 사랑의 불꽃 GGL 2기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여름 날씨 속에 산속 수양관에서 캔디데이트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145명의 팀멤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며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고 김광신 원로목사님 4주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많은 사역 가운데 귀한 영적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불꽃, TD 사역은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헌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계선교의 중요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도 TD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제자들교회와 여러 교회들, 선교지에서도 이 사역을 배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GTD가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팀멤버 모임을 하며 김광신 목사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함께 추억하고,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GMI 사랑의 불꽃 2기에 참석한 캔디데이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졸업식 간증 시간에는 간증이 계속 이어지며 멈추지 않는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당순복음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월요일 미국에 도착하면, 그날 저녁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 화요일부터는 달라스에서 열리는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저녁집회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주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MU 졸업 설교: 6/1
-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6/2-6/4
- GTD 212기(여): 6/7-6/10
- Peru 목회자 컨퍼런스 및 영적대각성집회 : 6/23-6/26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 저녁부터는 빅베어 산장에서 GTD 212기 여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번 GTD 212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페루

최갑순 / 정미희 선교사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칠 때 마다 기쁨과 고마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페루신학교 사역을 섬겨 나갈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올해 들어 35차, 36차 소집세미나를 섬기면서 부족한 종은 다시금 그 은혜가 전율처럼 영적인 힘을 주시고 달려갈 길에 명확한 라인이 그려져 힘찬 도약의 내딛음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배움의 열심을 다하는 페루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이 그 감사이고 오직 주님이 맺어준 헌신된 감사님들의 열



강에 우리는 감격과 은혜로 찬양으로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계속적으로 페루신학교는 본신학교와 청년 그리고 여성지도자 쉰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은혜롭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청년세대의 열심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에 앞으로 예비해 주시는 청년세대를 더욱

기도하며 갈렙 장학생 제도에 작은 결실로 청년 사역자의 열심을 통해 열매로 진행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3월부터 올해 기도 가운데 선정된 6명의 갈렙 장학 리더십 청년들이 성실함으로 사역과 학업에 매진하며 2명의 개척사역자들은 청소년과 청년 부흥에 매진하며 아울러 신학교와 연계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청년 차세대 사역자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해 주세요.

빈민아동후원은 아동들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가족이 보내주시는 후원을 통해 자신들이 성장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열심을 다해 공부하여 가족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혀 올 때마다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자들의 기도와 사랑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축복입니다.

파나마 & 베네수엘라

김재한 / 그레이스 김 선교사

4월 둘째주 신학교강의와 졸업식,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신학생이 졸업하고 2명의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강의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후아킨목사가 크리스천가정,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2년간 열심히 공부한 신학생들이 어느덧 3회째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부터 2년간 새학기 신학교강의가 진행됩니다. 10명의 새로운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공부하게됩니다. 비록 많은 숫자의(15명) 신학생들이 아니지만 이곳 정글에 살면서 성경을 배우고 목회자,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먼 길을 걸어서 혹은 통나무배를 5시간 타고 내려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선교사에게는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2월말부터 정글 교회들을 돌아보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이곳도 기후 변화로 인해 건기철이 없이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 매년 3월에 카니발 기간에 정글에서 열리던 가족 세미나가 취소되고 정글 인디안들의 농사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2월에는 한국의 구정을 맞이해 삼일교회 청년들이 10일간 이곳 학교들을 방문해 VBS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3월에는 미국 이스트사이드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지역교회와 초등학교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월 초에 이곳 아비사마을에 청소년 선교를 위한 GYM을 오픈했습니다. 이 지역 시장님과 국경 수비대대장 등 많은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기쁨으로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국 삼일교회에서 파송한 신용길 선교사님이 그동안 쿠바선교를 감당하다 쿠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파나마에서 선교사역들을 돕다가 작년에 이곳을 방문한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협의해 우리와 협력사역을 하기로 하고 GYM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도를 전공한 선교사님이라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교회 식당 겸 어린이교실로 사용될 건물이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

펜아메리카 연장 도로가 이제 8월이면 완공되고 그동안 파나마에서 이곳 아비사까지 오는 중간 100킬로 정도의 도로가 보수가 안되어 거의 비포장 수준이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아스팔트 포장되어(80% 완공) 이제는 파나마시까지 쉽게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내년부턴 이곳 아비사가 속해 있는 다리엔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많은 인디안 마을들을 육로로 쉽게 방문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하기가 쉬어지고 많은 인디안 마을에서 선교사 방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는 내년년부터 빼노가나마을에 구입된 선교 부지에 시니어 선교훈련원, 청소년들을 위한 목공소, 식물원 등 여러 사역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입된 부지만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

를 구하는 중이며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기도할 때마다 콜롬비아까지 페냐메리카도로가 열릴 것을 보여 주셨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바이블루트라 명명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6월에 이곳 어린 영혼들을 위해 영어 교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함께 사역을 감당할 중·단기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제자 하비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곧 베네수엘라 제자 한 명이 더 도착할 예정입니다(번호사를 통해 수속중). 6월에는 미국 LA에서 대학생이 영어교실을 위해 1년간 단기사역자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이곳 파나마 다리엔캠프 지역 선교사역들을 보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웠음을 봅니다.

5월 첫 주에는 한국에서 왕의 재정팀이 방문해 이곳 파나마 교회에서 한주간 세미나를 갖습니다. 5월 2째주에는 아틀란타지역 교회 연합으로 단기선교팀이 도착합니다. 단기사역팀이 떠나면 저는 곧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튼에서 열리는 KWMA주체 동반자선교전략포럼에 참석하고 한국을 10일간 방문합니다. 몇 가지 건강검진과 교회들 방문을 마치고 파나마로 돌아옵니다.

대체적으로 6월 이후 사역은 이곳 정글 지교회들을 돌아보며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많은 사역들을 선교사와 이곳 동역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기도와 선교 물질로 이곳 선교사역을 동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쟁에 저희가 사는 곳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간밤의 소식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타타르스탄은 소련시절부터 러시아 군용 비행기제조 공장이 몰려 있는 곳으로 카잔 북쪽은 지역 이름이 비행기 제조구역일 정도로 공장이 많습니다.

현재 타타르스탄 전역에 비행기 제조공장들이 드문 공장으로 바뀌어 우크라이나에 타격점이 되었습니다. 공격 드론이 도시 안에 들어오면 몇 시간동안 사람들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훈련된 대피지역으로 이동해서 드론 위험경보가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론 위험경보 시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은 계속됩니다.

사역 소식

카잔은혜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일예배에 러시아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러시아와 남미 지역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많은 남미유학생들이 러시아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

시아어 설교를 구글번역기를 통해 스페인어로 이중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페루유학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카톨릭이 배경인 친구들이어서 그런 지 예배 후 성경 공부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복음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이었던 타타르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한편으로 기쁘면서 씩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지난 일 년간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을 보며 새롭게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알리사 전도사님의 수고로 주일 식사가 풍성해졌습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파리드집사님과, 여름 강좌(6월), 역사문화캠프(8월 말), 불가그라드 트레스티아즈(8월 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아뢰 부탁드립니다.

가정 소식

이번에 저희 가정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상선암 수술 후 검사를 해 보지 않아서 이번에 좀 일찍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막내 세아도 재작년 수술 후 검사를 안 해 봐서 그동안의 다리 상태를 체크하고 아직 잘 굽혀지지 않는 무릎 치료를 받고자 5월 말에 한국에 갑니다. 8월 중순까지 치료를



받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아내와 세계, 세라가 한국에 5주정도 방문합니다. 특별히 세라는 6월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부터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현지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한국에 잘 적응하고 주 안에 좋은 만남이 이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는 영혼,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넘쳐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심방 사역

학교에서 맞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걸을 수 없게 되어 몇 년째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스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기도해 주고, 재활을 위한 병원비와 재활용 실내 자전거도 지원하며 마음을 여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 받고 있는 청년들과 심방 사역을 가르치는 일환으로 함께 방문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기독교에 대한 담을 낮추며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란민 정착지 예수마을 소식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심는 사역이 진행중입니다.

정착지 시설로 들어온 피란민 모녀 가정은 남편이 문제를 자주 일으켜 교도소에 가곤 하기에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아서 이유를 물으니 잘 먹어서 위가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가져온 살림도 거의 없고 주방 도구도 3~4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며 복음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말씀에 집중하며 준비한 요나 스토리

요나서 1~2장은 A팀이, 요나서 2~4장은 B팀이 담당하며 청년들이 4개월여 성경말씀을 생각하고 표현하며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I국

진0000 선교사

먼저,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터키에서의 OYT가 벌써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약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3~4번씩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연결되고 다시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TD, 전도 사역, 그리고 TD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Middle Eastern Globe of Love, 곧 MEGL이었습니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팀과 다시 연결되고, 보지 못했던 터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정말 하늘이 땅에 임한 듯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터키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27일 기도 헌신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족들이 유튜브를 통해 서로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비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돌파,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6월을 바라보며, 저는 I국으로 돌아가는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부담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B대학교에서 성서학 석사 과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2년 과정이며 연장할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를 위해 하슬로모라고 불리는 준비과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저에게 가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통해 I국에서 계속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지원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는 여기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거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30대의 싱글 아시아 여성으로서 내가 정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꼭 이곳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기대라는 초대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외롭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저는 균형을 찾고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살면서 오스만 투르크(지금의 튀르키예)의 영향이 컸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튀르키예 여행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보스니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때 마침 권혁석 장로님의 권유로 튀르키예에서 행하는 TD (프레스 디아스)에 참석해서 팀 멤버로 일주일을 섬겼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이틀 정도 이스탄불을 구경하면서 보스니아를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슬라브 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왜 중동계통의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일까? 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여키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들로 인해서 보스니아에 많은 이슬람신자가 생기게 된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튀르키예의 모스크와 사람들을 보면서 보스니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고대 로마 때부터 92-95년 보

스니아 내전까지 침략과 유린만 당한 보스니아는 한국과 같이 침략만 당한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임에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보여지는 삶은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은 복음의 나라였다면 그나마 울분이 덜 생겼을 텐데 많은 영혼들이 참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슬람의 거짓 영에 속아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도 신문에서 떠들어 대는 것과는 달리 삶은 평안해 보이고 일상 생활이 순조롭게 유지되지만 보스니아의 모스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주받은 영혼이란 이런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우버를 타고 이동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튀르키예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는 거짓된 영에 전국민이 사로 잡혀 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튀르키예 여정이 끝나고 보스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예보 공항에서 제가 사는 집까지 택시로 오면서 기사분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

를 했습니다. 이 기사분은 철저한 이슬람 신자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기에 연성을 높이지 않고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의 보스니아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스니아어가 하도 어려워서 이 장벽을 뚫을 수 있을까 늘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대화를 해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보스니아어와 문화에 더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이슬람에 헌신한 이 기사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독실한 이슬람 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분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세명의 신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하나님 한 분이냐’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제대로 설명해 주고 변증할 수 있는 보스니아어의 실력이 아니어서 깊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일단, ‘삼위일체’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두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진리라고 믿는 코란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송규영 / 오호속 선교사

잔지바르는 지금

잔지바르는 지금 우기철을 맞아 3월 중순부터 시작한 우기철이 4월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 5월이 됐는데도 그치지 않고 폭우성 소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날씨가 습하여서 독감 환자와 설사환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에버그린 학생들 중에도 아이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독감과 설사 등으로 3주가 넘게 아팠고 이번주 들어서면서 겨우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환경으로 몸이 아프다 보니 생활 리듬이 깨지고 말씀과 기도에도 소홀해져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준엄히 책망하는 말씀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에버그린 학교

새로 건축하여 이사한 학교가 개학하여 어수선한 상황에 아직 정리도, 아이들이 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올해는 라마단이 일찍 시작되다 보니 개학후 1달만에 라마단이 시작되어 방학을 했습니다.

라마단기간동안 유치원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완전 방학이었고 4~7학년까지는 오전 수업을 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가면 오후시간에 기술자들을 불러서 2층 실링보드 공사과 바닥 도끼다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곳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어서 먼저 유리창문 몇 개를 주문해 봤는데 열고 닫을 때 틈새가 벌어져 제대로 맞는 문이 없고 사이즈도 잘못 제작되어 오른쪽 문과 왼쪽 문이 다릅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슬라이드 문을 주문했는데 업자들이 어떻게 제작할지 몰라서 주문한지 3개월이 지나도 가져오지 않아서 문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건축의 마무리를 할줄 모르니까 일일이 저희가 간섭하며 잘못된 부분을 말해줘도 함나쉬다(문제없다) 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일을 하며 우리 속을 태웁니다.

4월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우기철이 시작되어 빗속에 우산도 없이 아이들이



비에 흠뻑 젖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고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 아이들조차도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비에 젖어 오는 아이들이 젖은 몸으로 공부하다 보니 감기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열이 나고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설사와 감기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내려가면 두꺼운 옷이나 이불이 없어서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도 이번 우기철에 3주간을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고 감기약, 항생제를 먹으며 힘든시간을 견뎌왔습니다.

7학년 아이들은 국가시험을 대비하여 4월 초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토요일 주말 밤에 가끔 달걀을 삶아다 먹여 영양보충도 시키고 건전한 영화를 상영하여 견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용 기숙사가 아직 없어서 교실 빈칸에 남자방 1칸, 여자방 1칸 각각에 부모들이 보낸 스폰지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잡니다. 또, 올해부터 중학교를 시작하여서 앞으로 아이들이 기거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학교

현재 잔지바의 교육환경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정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고학년이 되어도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고 책을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사립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학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부학교에 보내는 실정입니다.

정부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료지만 사립학교들은 선생님들의 봉급, 세금, 의료보험, 연금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비를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 노아학교는 현재 1학년과 2학년 아이들

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일자리가 많지 않고,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 땅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보통은 하루 품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농사지으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숙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가면 방치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개학 후 바로 라마단 금식 1개월 방학동안 쉬고 시험을 본 결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50%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 학부모 회의를 열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방과후에 남게하여 보충수업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내지 않고 과외를 하는 것이기에 감사하며 동의를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지바르 안디옥 성경대학

이번 11기 성경대학생들이 18명이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생업으로 인하여 지치기도 하겠지만 나날이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가고 기쁨이 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위 가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제1팀 "신약성경 개요" 수업을 공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노방전도와 앞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대비하여, 계속 배우는 성경대 수업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김경수 / 서경란 선교사

라능까퍼교회

사역자 뺨과 협력해서 힘있게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교회에 장로 2명이 세워졌습니다 (쿤탱, 쿤램). 지난기간 박학을 이용해 청소년캠프를 참석하였고, 여성성도들은 여성 수련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6일부터 인카운터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도가 생활화되며 새신자들이 연결되어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다음세대가 캠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현지 사역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태국 남부 라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추가로 기도하기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더해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축복해주신 재정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 - 전도폭발

2026년 올해부터 새롭게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기존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이며 무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훈련은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복음전문어를 암송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며 기도동역자를 세워 함께 기도합니다. 전

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전도자가 되며 주의 은혜로 변화받은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터전속에서 이웃에게 전해나가기에 소망합니다. 전도폭발전문을 잘 암송하고 매주 있는 전도대상자에게 전도하는 과정을 잘 소화해나가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 라능지역 교회연합 가족수련회

잠언2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2박 3일간의 라능지역 교회들이 모여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영육간의 심과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각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예배의 힘과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라능 지역 가운데 연합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자신의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땅이며, 많은 영혼들이 참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능 임마누엘 카렌교회

하나님께서 라능 임마누엘 카렌교회에 새로운 부지를 허락하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곳이 라능시내에서 예배와 기도, 다음



세대 양육과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BIT신학교입학 - 라능청년 포드

올해부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한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형편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주안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나라의 사역에 헌신을 하며 신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에 소망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삶을 증거하며 또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며 소망없는 청년들에게 큰 소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라능지역에서 현지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져 태국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곳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비전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다시 밟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시 세워 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생각보다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망가지고 부서진 곳을 하나씩 고치며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현지 업자들과 일정을 맞추고, 더디게 진행되는 수리 과정을 기다리며 마음이 조금해지기

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당분간 머물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집을 고쳐 가듯,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 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기도제목

1. 한국어학당 사역과 현지대학교 MOU

한국어학당 사역을 위해 현지대학교와 MOU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2.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언어 습득을 위해

기쁨이와 팔복이가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영어와 현지언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은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나 믿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3. 가정의 회복과 영적 재정비를 위해

그동안의 이사와 집수리, 정착 과정으로 가족 모두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가정 가운데 다시 깊이 세워지도록, 무더위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복음 증거의 열심을 회복하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나마 & 베네수엘라 김재한 / 그레이스 김 선교사

1.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2. 방문하는 단기선교팀들이 안전하게 은혜속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진행중인 건축들의 재정과 이곳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도록
4. 동역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폴로목사 백내장 수술 후 회복 중, 파올라목사 수술 후 회복중)
5. 주님께서 이곳 다리엔겍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중,단기 선교사들을 보내 주시도록
6. 빼노가나마을에 시니어선교 훈련원 등이 잘 계획되고 건축에 필요한 물질과 선교동역자들이 채워지도록



러시아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1. 러우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2. 카잔은혜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3. 초청되어 오는 청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TD 까지 잘 연결되도록
4. 교회 건축가운데 돕는 손길이 넘치도록
5. 구소련 GMI 10,000 개 교회 개척과 카잔은혜교회의 1,000개 교회개척을 위해
6. 주선민 선교사의 갑상선암 치료와 막내 세아의 다리가 잘 치료되도록, 둘째 세라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29호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 보성거자씨교회 후원으로 30호 교회를 준비중인데, 건물과 함께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2.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25-26학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교수사들과 학생들이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3. 올네이션 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조정아선교사와 모든 교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4. 김영대, 조정아(성훈, 성빈) 선교사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미국 진0000 선교사

1. 터키 친구들 — Elif와 그녀의 여동생 Hilal, 2018년부터 만나고 있는 친구, Dicle, Şevval, 그리고 신장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이스라엘 친구들 — Eden,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 한 사람, Ayellete, Romy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팀 안에 연합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각 팀원을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P. Elyas와 그의 가족, Ray Kim, Elisha Lee, Isaac Lee, Joel Kim, Katie Kim, Sora, Helen, Aaron,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우리의 전도 사역(O)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열리게 기도해 주세요.
6. 터키가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게 되도록,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7. GCI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GCI가 성장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과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 주는 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1.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을 내는 무지한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 주세요
2. 에버그린 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이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에버그린, 노아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3. 제 11기 성경대학 학생들이 마지막 훈련을 마치는 순간까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새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졸업생들의 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4. 비자를 순척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5.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 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7.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페루 최갑순 / 정미희 선교사

1. 페루신학교 갈렙 장학 집행을 통해 청년사역자의 사역이 정착되도록
2. 청년중신학교 갈렙장학생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청년 리더십이 교회마다 세워지도록
3. 여성중신학교 여성사역자 후원과 새로운 일대일 아동후원자가 연결되기를
4. 건축 중인 페데레갈 빈민교회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공간임대를 위한 비용
2. 감옥사역 준비
3. 언어가 향상되도록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동유럽 Romania Local Church G/E & VBS (6/2-6/9)
 - BRASIL Imersao #3 (6/3-6/6)
-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6/30)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백준승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필리핀 Grace camp & 개척선교 (6/23-6/27)
S/L: 김흥권 목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콜롬비아 AFA 6기 (7/5-7/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최은용 집사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프레즈노 몽족 선교 (7/5-7/8)
S/L: 성현준 목사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제임스 송 집사 (714-335-6556)

-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의료선교 (7/16-7/19)
디렉터: 김영수 장로
팀장: 제임스 황 집사
문의: 조셉 한 집사 (714-213-5033)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